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남측에서는 정의용 청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호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통일부 차관, 박지원 김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평화센터 부리사장 등이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나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조화의 명기에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대중 전 조화의 명기에는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 《고 리희호녀사님을 추모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 하여》, 《김정은》이라고
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문과 써여져있었다.
조화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리희호녀사의 유가족들에게
신 조의문과 조화를 위임에 보내신 조의문과 심심한
따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외로말씀을 김여정 조선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
6월 12일 오후 판문점에서 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남측에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리희호녀사의 유가족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가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리희호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현 북남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있으며 온 겨레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2019년 6월 12일

위인을 따르는 남녘의 민심

최근 남조선 각계층에서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지략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흐름을 주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칭송의 열기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전 진보적청년학생들은 지난해 11월에 결성된 《서울남북정상회담 방해세력제압실천단 백두수호대》의 명칭을 《4.27남북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리행 방해세력제압실천단 백두수호대》로 개정하고 자기들의 활동을 보다 적극화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모임에서 그들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하여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소탈한 인품과 큰 포용력에 온 국민이 놀라워 갑탄하였다》, 《남남민중모두가 결축한 우리 민족령수의 모습, 북의 진

짜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여러 진보적인 청년학생운동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올해초부터 김정은국무위원장님에 대한 칭송을 결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있다. 이 단체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만나 뵈은 사람들모두가 위인장님의 위인적모습에 대해 칭송을 거듭하고있다.》,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를 바라는 대학생들은 김정은위원장에 대해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력과 혁명활동, 말씀질 등을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사업과 인터넷사이트개설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있다. 이 단체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모습과 령도업적을 깊이 연구하는 학술토론회도 진행해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열렬한 칭송은 민족의 위대한 최고령도자로서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려는 남녘민심의 열렬한 지향과 의지의 분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고 통일의 세력사를 써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위인적품모습은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격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인에 대한 애독과 호모는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 사상감정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과 북남관계의 극적인 전환을 목격하면

서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이 땅에 밝은 미래를 안아오실분은 경애하는 원수님뿐이시라는것을 갈수록 깊이 절감하고있다. 진리와 애국에 살고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절세의 예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기둥으로, 통일조국의 령수로 믿고 따라나서고있다.
온 세상이 우러러 호모하는 절세의 위인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고 영광이다.
그 어떤 사나운 외공과 역풍이 불어와도 절세위인의 령도자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으며 조주통일의 날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역사적인 6.12조미공동성명 채택 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단체들이 성명 발표

여러 나라 단체들이 6.12 조미공동성명채택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에파도르 김일성주석 회고위원회, 에파도르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 주체사상연구 에파도르문화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련대성 에파도르 카나르주협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에파도르위원회,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련대성 에파도르 과관다협회, 김정일장군 배후친목회, 배후 김정숙도서관, 배후조선친선문화협회, 콜롬비아조선친선협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싱가포르조미수뇌 상봉과 회담이 가지는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지지하고 온갖 대조선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싱가포르조미수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이 철저히 리행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의 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영국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국립위원회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6.12조미공동성명의 채택은 세계인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다.
조미공동성명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에 수렴해나가는 조미관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해 천명하였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선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에티오피아래련도련맹은 이렇게 성명하였다.
6.12조미공동성명의 성실한 리행만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미국은 성근한 자세에서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해 성의를 다하고있는 조선의 적극적 노력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조선인민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백두산세조조선친선협회, 체스쑤주체사상연구

및 구원소조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강위력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나라이다.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사회주의조선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조선의 의미있는 조치들에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일방적인 행포기만을 고집하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강도적권위이라고 까밝히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궁정적인 노력을 기울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신도군의 드넓은 갈밭에서 비행기들이 비료산포

평안북도 신도군의 드넓은 갈밭에서 비행기에 의한 비료산포가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섬인민들의 생활향상과 갈생산에 이바지할 수 많은 설비와 물자들을 보내주신데 이어 신도군의 갈밭에 비행기로 비료를 산포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조선인민군 항공군 비행부대 지휘관들은 단계별로 따르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출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불라는 열의에 넘쳐있다.
지금 신도군인민들은 자력쟁쟁의 정진력을 발휘하여 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불라는 열의에 넘쳐있다.
비행사들은 신도군삼공을 초저공비행하면서 날마다 수백정도의 면적에 수십의 비료를 산포하여 비료가 드넓은 갈밭에 빠짐없이 스며들게 하고있다.
지금 신도군인민들은 자력쟁쟁의 정진력을 발휘하여 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불라는 열의에 넘쳐있다.

효능높은 식물성장촉진제 연구도입

만포시 새기술교류소에서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연구자들은 자기 지방에 흔한 유용광물들을 리용하여 효능높은 식물성장촉진제를 연구개발하여 여러 단위에 도입하였다.
수십가지 미량원소들이 함유된 식물성장촉진제는 식물들의 뿌리발육을 촉진하고 빛합성능력을 높여줌으로써 행태와 가물 등에 잘 견디도록 하며 농작물의

안정한 수확을 담보해주고있다.
이 촉진제를 종자처리제와 엷트비료로 리용한 여러 단위에서 불리한 기상후조건에서도 생육기일을 앞당기고 논벼와 강병이, 콩, 남새 등의 수확을 훨씬 늘였다.
또한 지난 시기에 리용되던 식물성장촉진제들에 비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많은 자재와 노력, 에너지를 절감하며 알곡, 남새, 파수, 뽕나무재배는 물론 산림, 원림복합부문을 비롯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9》 개막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9》가 11일 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개막되었다.
《기능성남새품종의 육종과 도입, 온실남새생산의 집약화, 현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

는 온실남새생산과 재배기술에서 이룩된 과학연구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보급 일반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토론회는 과학연구성과 및 기술경험표회, 과학기술강의 및 실기강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참관하였다.
토론회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본사기자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국제사회계가 찬양

《조선사람들이 자기 령도자를 따르는 모습은 실로 감동적이다.》, 《인민들이 령도자를 호모하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나자신으로 하여금 천국에 있는지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지 모를 지경으로 만들었다.》, 《전체인민이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데서 조선사회의 불패성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내가 본 일심단결의 화폭을 그대로 담아 브라질을 가져가지 못하는것이 유감이다.》...
이것은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우크라이나, 에파도르,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각계인사들속에서 울려나온 찬탄의 목소리였다.
국제사회계는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공화국의 자랑스런 현실을 격찬하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어제날 식민지악소국이었던 조선이 오늘날은 그 누구도 감히 견디드릴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조선이야말로 기적적인 사변들로 행성을 뒤튼드는 강

대한 나라이다.
조선이 달성하는 모든 승리의 비결은 대를 이어 결축한 수평을 모시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인민과 군대가 철통같이 뭉친데 있다.
벨라루시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조선은 수평, 당, 대중의 혼연일체가 공명, 대중, 대승의 힘으로 회로되도 당할수 없는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 전체 인민이 령도자를 자재로운 어머니로 높이 칭송하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나라라고 말했다.
라이의 《성삼일보》는 불패의 강국인 조선을 보며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신을 지니신 김정은각하의 령도력에 조선은 려사에 류례없는 기적들을 창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기네신문 《호로야》는 이렇게 전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있다. 조선의 첫째가는 위력은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의 근저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무한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
그 뜨거운 사랑과 정은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하고

있으며 단결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게 하고있다.
쿠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은 조선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이 순결하고 공고한 동지적의리의 관계를 맺고있다. 조선이 적대세력들의 가장 악랄한 제재압박에도 끄떡없이 전진하고있는것은 바로 일심단결이라는 위대한 힘이 있기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는 조선의 경험은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 자체의 막강한 힘이 있으면 그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고 하였으며 도이칠란드 조선문화연구소 조 책임자는 조선은 인민대중이 령도자의 두리에 단결하여 투쟁해나갈데 점령 못할 목표가 없다는것을 세계 앞에 힘있게 과시하고있다고 말했다.
로씨야신문 《자브라》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중심으로 령동같이 뭉친 일심단결은 미증유의 힘과 기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떠올리고 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

제주의공세가 조선에 집중되던 시기에도 이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기치가 변함없이 휘날렸으며 사회주의의 인민적 성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브라질주체사상연구센터 인터넷홈페이지는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이 수십년간이나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뿐 아니라 사회주의강국으로 비약하고있는 근본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조선은 다너운 사람들은 그에 대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였기 때문이라고 일치하게 말하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류력 사상 처음으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뜻을 이어 온 나라를 사랑과 정이 차넘치는 일심의 화원으로 더욱 전진시켜나가신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가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고 하면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해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바치신 고귀한 헌생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헌생은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위인의 고귀한 헌생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릴수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 보시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주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역할을 강화하고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통일운동을 전진시켜오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는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재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고전적로작들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진적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식화하시어 온 겨레가 통일위업실현에서 틀어쥐고나갈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역사에 기록없는 최악의 역경과 류내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쭈켜드리고 내

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평도에 의거 두차례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6.15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온 민족을 자주와 단합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적극 떠밀어주는 우리 민족끼리님은 6.15통일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되었다.

그 나날 북남사이에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협력, 배양과 교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미래를 관망하게 하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넓은 도량, 무한대한 포용력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었고 활력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기업가였던 정주영선생을 북남경제협력의 개척자, 애국적경제인으로 높이 내세우시며 류내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쭈켜드리고 내

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평도에 의거 두차례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6.15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온 민족을 자주와 단합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적극 떠밀어주는 우리 민족끼리님은 6.15통일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되었다.

그 나날 북남사이에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협력, 배양과 교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미래를 관망하게 하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넓은 도량, 무한대한 포용력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었고 활력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기업가였던 정주영선생을 북남경제협력의 개척자, 애국적경제인으로 높이 내세우시며 류내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쭈켜드리고 내

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평도에 의거 두차례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6.15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온 민족을 자주와 단합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적극 떠밀어주는 우리 민족끼리님은 6.15통일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되었다.

그 나날 북남사이에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협력, 배양과 교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미래를 관망하게 하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넓은 도량, 무한대한 포용력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었고 활력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기업가였던 정주영선생을 북남경제협력의 개척자, 애국적경제인으로 높이 내세우시며 류내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쭈켜드리고 내

9월의 영광은 평양의 영광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맞이한 첫해인 주체101(2012)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력사의 땅 판문점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셨다.

그날 판문점에 숭엄하게 세워졌던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의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추억깊이 회고하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께서는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셨다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필필 존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필생의 념원과 뜻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칙의 의지를 다지시며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맞이한 첫해인 주체101(2012)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력사의 땅 판문점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셨다.

그날 판문점에 숭엄하게 세워졌던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의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추억깊이 회고하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께서는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셨다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필필 존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필생의 념원과 뜻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칙의 의지를 다지시며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맞이한 첫해인 주체101(2012)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력사의 땅 판문점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셨다.

그날 판문점에 숭엄하게 세워졌던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의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추억깊이 회고하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께서는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셨다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필필 존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필생의 념원과 뜻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칙의 의지를 다지시며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맞이한 첫해인 주체101(2012)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력사의 땅 판문점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셨다.

그날 판문점에 숭엄하게 세워졌던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의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추억깊이 회고하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께서는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셨다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필필 존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필생의 념원과 뜻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칙의 의지를 다지시며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수령님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에

우리 민족끼리

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김대중대통령사이에 단교회담이 진행될 때였다.

회담에서는 북남공동선언문작성에서 무엇이 선인의 핵으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심층논의되었다. 김대중대통령은 군사적통일화해, 경제공동위원회를 내오는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도록 제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남조선대통령에게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 이미 합의한 좋은 문건들이 많다는것,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하시고 이번에 내놓는 문건은 2000년대에 들어선것만큼 7천만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

기자들의 요청도 들어주시며

평양상봉의 나날 목란관회장에서 있는 일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연락에 나가시어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시고 북남공동선언이 합의되었음을 알려준 언회장이 떠나갈듯 축하의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자 김대중대통령은 주적으로 실현할데 대하여 천명하자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민족끼리, 너무나 통속적이면서도 뜻이 깊고 가슴을 울려주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이 사상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리치이고 숭고한 통일리념인것이다.

그러나 이 력사적인 화폭을 남긴 기자들은 놀리고말았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몰라하였다. 마침내 남측보도관에게 책임진 수형원이 김대중대통령을 찾아와 기자들이 력사적인 순간을 촬영하지 못하여 안달이 나 한다고 말하였다.

다함없는 고무의 마음을 담아

수정공예 《준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쿠웨이트 만년선련합회사 총사장 알리야르 데가니가 올린 선물이다.

총사장은 선물제작을 쿠웨이트에서 제일가는 수정공예품회사에 주문하였다. 그리고 제일 좋은 수정으로 최대한의 정성을 기울여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여러차례나 공예품제작과정을 알아보면서 훌륭하게 만들도록 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군술에 의해 세계자주화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는 시대상이 선물에 담기도 하였으며, 또한 갈기를 날리며 기세충چه 달리는 준마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불굴의 신념과 투쟁정신으로 질풍같이 앞으로 내달리는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담도록 하였다.

선물함의 뚜껑부분에는 영어로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올립니다》

2011. 2. 16 만년선련합회사 총사

장 알리야르 데가니》라고 새겨져있다.

천연색수정으로 형성한 선물은 높이 31.5cm, 길이 46cm, 너비 22cm이다.

본사기자



인민의 의의의 절대적기준으로

공화국에서 국가정책은 철두철미 인민의 요구와 리익의 견지에서 작성되고 집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께서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의 리익과 인민의 의사와 요구, 이것이 참다운 인민의 나라인 공화국의 정책작성에서 절대적기준으로 되고있다.

이 절대적기준에는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물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깰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문화정서생활기지와 살림집들, 생활용품 하나하나도 그것을 리용하는 인민들이 스스로운 불편도 느끼지않게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었다.

연예인가 급검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신

은 문득 목표의 규격을 어디에 기준했는가고 물으시었다.

국제사격경기에서 쓰는 목표와 규격을 같이했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목표가 작다고, 우리 인민들이 리용하는것만큼 목표를 더 크게 만들어세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사격장 목표의 크기를 국제적인 규격에 따라 정하는것은 보통의 상식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국제사격경기에서 쓰는 목표의 규격이라고 해도 인민들이 리용하는 데서는 작아서 불편을 느낄수 있다는것을 헤아리시고 인민들이 리용하기 편리하게 더 크게 만들어 세우도록 하시었다.

외국의 통신문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김정일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관심을 하나 지어오,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그들이 편리해하는가를 물으신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새롭고 개진된 메아리사격관을 찾으신것이다.

25m연총사격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은 경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이것은 어떤 제재도 무색하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에 대한 제재가 강해질수록 국내상품들이 더 많이 나가고있다. 조선사람들은 다른 나라 상품들보다 자기 나라 제품들을 더 좋아한다.》

《제재속에서도 조선은 자기 힘으로 발전하고있다. 어떤 제재도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건설에서 자력자강의 기상으로 비약해나가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로제야, 영국,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언론인들이 보도한 내용의 일부이다.

지난해 조선을 방문한 유럽인들도 대단것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 가혹한 제재압박속에서도 실업자가 없고 누구나 배우며 부모없는 아이들도 행복을 누리고있는 현실에 대해 놀라움과 감탄을 표시하였다.

조선의 현실은 자력갱생의 정신이 안아온 자랑찬 현실이고 자적이다.

자력갱생의 정신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투쟁정신으로서 공화국의 력사상 관통하는 투쟁전통이고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은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되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현대적 군수 공장으로서나 만들수 있는 작란과 권총, 보총과 탄알, 여기에 필요한 화학약품까지 만들어 일제와 싸워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다.

항일의 나날에 창조된 자력갱생의 정신은 조선인민의 투쟁전통과 정신으로 되었고, 투쟁에서 유래 창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해방된 이 땅에 제힘으로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

를 건설하였으며 전후 제다미를 헤치고 사회주의공급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 동안에 실현함으로써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웠다.

공화국의 력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1990년대에도 이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애국열의 뜨겁게 끓어올랐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이 되도록 노력하고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 자력갱생의 정신과 투쟁전통은 세기와 년대를 넘어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강령기를 열어놓기 위하여 경제건설전진군을 파견 나가야 할 구호로 제시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공이 불어오든 서공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다 라힘도 하지않을 것이며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라고 하시었다.

자력갱생의 기상으로 끓어올랐던 새것을 지향하고 끊임없는 투쟁으로 공화국은 나날이 비약하고 젊어지고있으며 강성국가의 재부들이 늘어나고있다.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서면 승자가 되고 주저앉으면 패자가 된다. 이것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할수 없는 투쟁의 진리이고 승리와 영광으로 떠밀어주는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체질화한 공화국의 인민은 자력으로 이 땅에 강성부흥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올것이다.

홍은주

우리민족끼리리념은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기치

오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사업은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으로 전진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기치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북남관계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재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뚜렷한 민족자주의 리념이기때문이다.

민족자주의 민족문제해결의 행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인 동시에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의 직접적담당자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위업을 대신할수 없다.

그런것만큼 나라의 통일은 마땅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사과 요구에 맞게 민족자재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외세의존, 외세공조가 북남사이에서 대결과 불신만을 조장시킨다는것은 민족분열 70여년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민족자주의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란 외세의존은 민족의 영구분열과 망국의 길이다.

침략적인 외세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이로부터 민족적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인 동시에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확약하였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이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기치로 되는것은 또한 이 리념에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때 대한 민족대단합의 사상이 깃들어있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는 거족적위업이다.

온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의 대안이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바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만민간의 의지, 통일문제해결에서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주정신, 자주적립장을 구현하고 있다.

과 남이 민족적평등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나간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은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주체적통일에국력량을 비상히 강화할때만이 분렬주의세력을 압도하고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어제길수 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기위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리행해나가기야 한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여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데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흐름을 힘있게 추동하자면 외세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를 하여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변함이 없는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기치이다.

조선민족의 한 성령이라

남조선 각지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9돐을 기념

6.15공동선언발표 19돐을 맞아 남조선의 인천시가 지난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해평화특별기간》을 운영하고있다.

이 기간 인천대공원에서 《6.15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식》과 《인천시민 통일한마당》이 열리며 시청에서는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관련사진전시회 등이 진행된다

《우리 집 이야기》가 상영되며 《경전시대의 악법을 유지하면서 북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유지시켜야 하는것은 심각한 국민기만이고 세계적수치》라고 성토했다.

그리면서 토론자들은 《북의 방송은 물론 모든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류통 및 접근허용이 필요하다. 유엔제재유지상향에서도 5.24조치 및 금강산관광중단 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독자제일부를 해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립장을 피력하였다.

남조선의 경기도는 6.15공동선언발표 19돐을 맞아 조선반도평화를 기원하는 《경기평화음악회》를 15일 19시 경기평화광장에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도 15일 《6.15공동선언 19주년 강원지역기념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평화 리행



남조선 단체 자주통일실현투쟁에 나설것을 호소

보도에 의하면 민족민주주의 사회생자법국민추모위원회가 8일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추모집회를 가지고 자주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내외의 전정세력과 분렬세력들이 남북선언들과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의 리행을 가로막으며 조선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고있

다고 단죄하였다. 북에 일방적인 제재압박이 가해지고 합동군사연습은 이틀만 가진것 계속 강행되고있다고 단죄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이러한 상태에서 초물민과의 민주평등의 념원은 실현될수 없다고 하면서 남북선언들과 북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북남합의틀에 도전해나선 반통일직악

현시기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는데서 남조선보수패당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서버리는것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자나 북남관계사를 돌이켜보면 북과 남사이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합의들이 마려될 때마다 그것을 가로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어온 보수패당의 망둥이 기록되어있다.

일찍이 지난 세기 70년대에 조국통일3대원칙을 근본핵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채택발표되었을 때부터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이 한창의 총이장은 우리의 운명을 점칠수 없다.》고 떠들면서 분렬주의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광분하였다.

2000년 6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발표로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는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고 격동과 환희의 6.15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당시 사대매국파 반통일에 환장한 남조선의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민족의 경사에 박수를 보낼 대신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 든것》, 《용공리적문서》라고 시비중상하면서 6.15공동선언리행이 《미군철수로 이어질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양보하고 북의 고려련방제를 받아문것》이라고 생억지를 부렸다.

그런가 하면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 협력사업들을 《퍼주기》, 《공조》으로 비난하면서 사상건전 제동을 걸었다.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보수패당의 동족대결광기는 리명박, 박근혜의 집권시기 극도에 이르렀다.

리명박패당은 집권하기 바쁘게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대남공작문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선언》이라고 로골적으로 헐뜯었다.

그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진수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해 《배리적민주주의》라고 비방하면서 《열린 민족주의》를 해야 한다고 제쳐뒀으며 《실용외교》의 간판밑에 외세의 관계를 대내외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북남관계를 그제 북쪽시커나가겠다는것을 공공연히 떠들었다.

뿐만아니라 리명박패당은 범죄적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하고 북남대화과 협력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단하였다.

최세의 대결광녀인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 저지른 반통일직악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으로서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받았다.

사기와 협잡, 음모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박근혜적패당은 《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 《프레즈덴선언》 등 《체제통일》아무리 비친 대결선언들을 조작하면서 대결소동에만 매달렸다.

《서부른 판단으로 남북

관계의 환경을 바꾸는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제쳐내며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대화의 소중한 기회마저 날려버린것이 박근혜적패당이다.

나중에는 《북을 더이상 대화 상대로 여기기 어렵다.》고 독설을 내뱉으며 6.15의 유동자인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폐쇄해버림으로써 구해온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끝내 거부하면서 서 동족과 한사과 대결하려는 범죄적속성을 드러내 《자한당》패거리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에 피대줄을 두면서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세우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지는 못할망정 외세에 편승하여 남장도적인 반공화국제재와 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공화국이 위한 증대하고 의미

얼마전 남조선의 제주도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로 국제연단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들을 종합해보면 연단의 주제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것이다.

연단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정부》관계자들속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확실히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가을뽕구기같은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제재유지》를 떠들것은 동족의 정정당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외세의 천민부당한 요구에 더어놓고 추종

하는 저들의 사대매국적성을 다시금 드러낸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도 못하면서 《대화과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을 떠들것도 낯가죽이 간지러운 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력사적인

연단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정부》관계자들속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확실히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가을뽕구기같은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제재유지》를 떠들것은 동족의 정정당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외세의 천민부당한 요구에 더어놓고 추종

하는 저들의 사대매국적성을 다시금 드러낸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도 못하면서 《대화과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을 떠들것도 낯가죽이 간지러운 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력사적인

연단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정부》관계자들속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확실히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가을뽕구기같은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제재유지》를 떠들것은 동족의 정정당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외세의 천민부당한 요구에 더어놓고 추종

하는 저들의 사대매국적성을 다시금 드러낸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도 못하면서 《대화과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을 떠들것도 낯가죽이 간지러운 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력사적인

연단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정부》관계자들속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확실히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가을뽕구기같은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제재유지》를 떠들것은 동족의 정정당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외세의 천민부당한 요구에 더어놓고 추종

판공의 환경을 바꾸는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제쳐내며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대화의 소중한 기회마저 날려버린것이 박근혜적패당이다.

나중에는 《북을 더이상 대화 상대로 여기기 어렵다.》고 독설을 내뱉으며 6.15의 유동자인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폐쇄해버림으로써 구해온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끝내 거부하면서 서 동족과 한사과 대결하려는 범죄적속성을 드러내 《자한당》패거리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에 피대줄을 두면서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세우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지는 못할망정 외세에 편승하여 남장도적인 반공화국제재와 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공화국이 위한 증대하고 의미

얼마전 남조선의 제주도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로 국제연단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들을 종합해보면 연단의 주제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것이다.

연단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정부》관계자들속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확실히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가을뽕구기같은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제재유지》를 떠들것은 동족의 정정당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외세의 천민부당한 요구에 더어놓고 추종

하는 저들의 사대매국적성을 다시금 드러낸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도 못하면서 《대화과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을 떠들것도 낯가죽이 간지러운 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력사적인

연단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정부》관계자들속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확실히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가을뽕구기같은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제재유지》를 떠들것은 동족의 정정당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외세의 천민부당한 요구에 더어놓고 추종

하는 저들의 사대매국적성을 다시금 드러낸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도 못하면서 《대화과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을 떠들것도 낯가죽이 간지러운 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력사적인

연단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정부》관계자들속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확실히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가을뽕구기같은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제재유지》를 떠들것은 동족의 정정당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외세의 천민부당한 요구에 더어놓고 추종

하는 저들의 사대매국적성을 다시금 드러낸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도 못하면서 《대화과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을 떠들것도 낯가죽이 간지러운 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력사적인

연단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정부》관계자들속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확실히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가을뽕구기같은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제재유지》를 떠들것은 동족의 정정당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외세의 천민부당한 요구에 더어놓고 추종

적폐청산을 위해 초불을 다시 들것을 호소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신보》에 의하면 8일 민주주의자유가족들과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서울에서 《자한당》구탄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5.18방언, 력사외국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세월) 호참사 진상규명 방해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초불정신 계승하여 개혁여주행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계광장에서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러 집회를 가진 그들은 5.18을 모독하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적폐장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적폐세력이 아무리 날쳐다 자주와 민주, 평화통일의 념원을 실현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다시한번 초불을 들고 적폐를 청산하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6월 항쟁 정신으로 독재세력을 용납치 않으려는 의지의 분출

자주, 민주를 갈망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반독재, 반과썌투쟁의 합성이 온 남녘땅을 진감시켰던 6월인민항쟁이 전개된 때로부터 32년이 되었다.

당시 군사과썌 《정권》의 연장을 노린 《4.13특별조치》에 분노한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최대규모의 반독재연합전선체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등의 구호말에 집회와 시위, 통성, 시국선언, 성명발표, 단식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연일 벌여왔다.

6월 10일 《대통령》 후보가 지명되는 날을 계기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들과 모든 도소재지들에서 각계층 군중이 일제히 들고일어나면서 항쟁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청년학생들을 선두로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 종교인들, 택시운전사들, 야당 및 재야정계 인사들, 기업가, 상인, 공무원 등이 일부 전투경찰까지 여기에 참여하였다.

투쟁 참가자들은 도처에서 《민정당》당사와 관공서들 지어 경찰기관들까지 공격하였으며 폭압에 날뛰는 경찰의 무장과 자동차들을 해체소각하면서 과썌투쟁을 전개해 하였다.

과썌도당이 10여만명의 경찰과 직승기까지 내몰아 최후란

을 쓰야하며 탄압에 광분하였지만 항쟁자들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그날의 투쟁정신은 지금 독재세력의 후예, 적폐의 본산인 《자한당》 패거리를 청산하기 위한 초불항쟁으로 계속 이어지고있다.

5.18광주봉기자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해나시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투쟁을 혈투는 등 무적지한 땅언을 늘어놓다 못해 땅언자들을 비호하고 그 무슨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려놓으며 파썌통치의 재현을 로골적으로 선동하는 《자한당》 패거리의 망동은 온 남녘땅을 분노로 끓게 하였다.

《모두가 떨쳐일어나 제2의 6월항쟁의 길을 열어나가자》, 《6월인민항쟁의 전통을 살려라》 등의 합성이 울려나오는 속에 남조선 각계층은 《자한당》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인터넷에 오른 《다시 초불을 들고 자한당을 완전히 해체시키자》, 《국민을 우롱하는 역적 배주노들, 다음해 총선에서 박멸하자》는 글들에 화답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정치인들 그리고 학계, 경제계, 예술계,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6월인민항쟁 32년을 앞두고 각지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 라경민 처벌! 다시,

초불》 집회, 기자회견, 5.18 자주통일대행진, 시국선언 등의 다양한 투쟁을 벌렸다.

《자한당》당사에 대한 돌입시위, 장의화환보내기, 물벼락과 오물세레나기기를 단행하는 등 투쟁형식과 방법은 갈수록 다양해졌다.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전 지역의 15개 시, 도 단체장들은 《자한당》을 성토하는 공동문장을 발표하고 그의 해체를 요구해나섰다.

《국회》와 《자한당》 당사, 대법원건물앞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 투쟁장소 어디서나 박근혜를 탄핵했던 초불이 다시 커지고 《자유한국당해체만이 답이다》, 《민주주의를 침탈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친미친일잔당, 독재후예, 적폐세력 척결하자》, 《빨갱이몰이, 색깔론으로 보수패당이 연명하던 시기를 끝내자》, 《국민의 힘으로 적폐청산 완수하자》는 웨침이 새차게 울려나왔다.

각계각층이 망라된 《자유한국당해산심판 시민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만장일치로 《자한당》 해산판결이 내려져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는가 하면 《적폐의 모든것을》이라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보수패당의 죄행을 날같이 고발하는 글과 시, 가사가 연속

올랐다.

지난 4월 22일 한 주민이 청와대 게시판에 《자한당》 해산을 청원하는 글을 올린것을 시작으로 같은 내용의 청원자수가 6일만에 20만명을, 그로부터 이틀후에는 120만명을, 한달만인 5월 22일에는 183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청원운동사상 최고의 신기록이 세워졌다.

《자한당》 것들의 손전화기들에 《문자폭탄공격》이 하루에도 수백차례 가해졌는가 하면 패거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SNS에 《유치하고 망신스러운 자유한국당》, 《유일무이한 쓰레기당》, 《당장 해체되어야 할 친일적폐정당》 등의 글들이 올라 역적패당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전 지역을 휩쓸고있는 투쟁소식들을 보도하면서 보수의 아성 《자한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한계를 넘어서고있다, 투쟁정당의 해체를 요구하여 전 지역과 각계층이 들고일어난것은 사상 처음이다고 전하였다.

력사의 오물 《자한당》에 과멸을 선고하는 이 거세찬 투쟁은 6월인민항쟁의 정신으로 그날의 파썌독재의 후예를 용납치 않고 반드시 청산하려는 남조선 각계층의 꺾을수 없는 의지의 분출이다.

[조선중앙통신]

초불로 적폐무리를 징벌할데 대한 시

남조선시인이 창작

7일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가 시인 권말성이 제2의 초불항쟁으로 반인민적, 반민주적, 반통일적적악을 저지른 추악한 적폐무리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릴 민심을 반영하여 창작한 시 《초불이 폭도에게》를 실었다.

시는 다음과 같다.

초불이 폭도에게

그때 나는 폭도였다
 박근혜친 초불이 막 시작될무렵
 경찰차는 여지없이 광화문광장
 인도와 차도를 갈라 벽을 치듯 늘어섰고
 사람들의 공간을 침범할 경찰차가 미워
 그 큰 바퀴 한발 뱀다 걸어차버려자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잡으며 간절한 음성으로
 《폭력은 안돼요!》
 초불 든 우리를 폭도로 매도하려 했던 그들에게
 보란듯
 폭력의 《교》도 용납하지 않고 질서정연했던
 초불들
 경찰차에 꽃우표를 붙이고
 경찰에게 손님을 건네던 사람들 눈에
 경찰차를 발로 차던
 나는 어찌된 위대한 폭도였다

그러나 그때 진짜폭도가 검은 막뒤에 숨어
 그들의 총을 갈마취며 때를 노리고있었음을
 그들의 군대가 은밀히 움직이려 하고있었음을
 《계엄군》의 눈초리가 사람들을 막아서고
 《계엄군》의 수갑이 어딘가로 사람들을 끌고가고
 초불의 성지 광화문, 대전, 울산, 부산, 대구, 광주
 《계엄군》의 땅크가 도시를 짓밟을 계획을 하고
 있었음을

정보원의 간첩조작과 선거개입에 분노했을 때
 폭력에 농민이 쓰러져 분노했을 때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
 력사교과서 《국정화》,
 《한》 일성노예문제 《합의》,
 통합진보당해산과 내란음모조작...
 그렇지, 미친소병 미곡산 소고기수입반대 초불
 에도
 민중의 분노에 맞닥뜨렸던
 어거지와 졸속의 그 모든 순간에
 검은 어둠속에 숨어 무엇을 모의했는지
 어디 한번 제대로 말해보아라

너희야말로 진짜폭도다
 민심을 우롱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전쟁광 나라들의 국기를 흔들어대고
 《세월》호참사, 5.18항쟁에 악한 말을 쏟아내며
 《국회》에 드러누워 랑장판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권력을 붙잡으려 발악하는
 너희야말로 이 시대의 끔찍스런 폭도다
 사라져야 한다
 다시 선거철이 다가올때고
 쇼를 하듯 연극을 하듯
 너희는 위장의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웃으며
 허리를 숙이고 표를 구걸하려 없더러 걸하겠지만
 폭도여, 이제 확실히 잊어버려라

더우기 경악스러운것은
 《세월》호가 서서히 바다로 가라앉을 때
 단 한명도 구조하지 않으면서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당당히 내는
 치밀려는 너희 가증스런 모습에
 은 국민이 분노하던 그때도
 《계엄령》이라는 퍼젓은 무기를 꺼내려 했었
 음을
 설마하니 꿈에도 모르고있었다

그때, 어디 말해보아라
 너희들이 만지작대던 《계엄령》
 과연 그 두번이 전부였는지

독특히 보아라
 다시 초불이 피어올랐다
 바람불어도 꺼지지 않던 그 초불,
 《계엄령》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장엄한 초
 불이다
 우리 초불의 힘이 어디까지 닿는지 두고 보아라
 해불이 되어 너희 폭도들을 몰아내고
 용광로가 되어 너희 썩기는 외세도 몰아낼레다

참애국자들이 오늘 다시 초불을 밝혔으니
 거짓애국자, 너희 폭도들이여
 두려워하라



초불민심을 따르려는 움직임

남조선에서 다음해 4월 《국회》의원선거를 10개월 앞두고 여야당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있다.

이런 속에 지금 《자한당》은 초불민심이 바라는 개혁입법안들을 필사적으로 가로막기 위해 《국회》를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만들면서 안하무인적으로 놀아내고있다. 이에 격분한 진보정당들과 사회 각계에서는 《적폐본산 자한당을 정계에서 퇴출시키라》, 《래년도 총선을 통해 자한당을 심판하자》는 구호말에 연대연합하여 래년도 《총선》에서 《자한당》을 심판하려 하고있다.

이런데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의원보충선거때 정의당과의 후보단일화로 《자유한국당》을 눌러버린 경험을 살려 현재 당지지를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정의당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한편 정의당은 현 당국의 집권을 민주개혁세력의 승리, 초불민심의 반영이라고 하면서 주요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지정문제로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한당》을 검찰에 고발하고 역적당을 《망언과 반국가적행위를 일삼는 세력》,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계에서 몰락시키는 막가파세력》으로 몰아대고있는가 하면 《국회》에서 현 당국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보조를 맞추고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런 연대움직임은 초불민심을 반영한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파멸에 몰아넣은 초불민심의 요구는 탄핵사태시 몸을 도사

렸다가 지금은 기가 살아 독기를 뿜으며 동족대결과 과썌독재만을 꾸꾸는 적폐세력의 본산인 《자한당》을 정계무대에서 퇴출시키려는것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대의를 위해 사소한것은 양보하며 다른 진보개혁세력들과 연대하여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자한당》을 심판하려 하고있는 것이다.

민심을 떠난 정당은 사상 루각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에서 초불민심이 외면하고 규탄배격하는 《자한당》에는 미래가 없다.

본사기자 김응철

모르면 입다물고 가만히 있는것이 상책이라는 말이 있다. 남조선에서 《자한당》대표 황교안이 입에서 독사가 나가는데, 구렁이가 나가는데도 모른체 《안보》라령만 읊어대고있어 겨레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지난해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북남사이에서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약속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으로 평화와 안정을 바라다면 그 누구이든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철저한 리행을 요구해야 마땅한것이다.

그런데 황교안은 어떻게 놀아대는가. 논란 쟁개지면 이 선언들과

합의서를 무력대고 부정하며 헐뜯어대고있다. 얼마전에야 황교안은 군사분계선일대물도둑이 《정부가 북의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군을 뇌사상태로 만들고있다》면서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는 입에 담지 못할 망언까지 하였다.

은 겨레가 쌍수를 들어 지지환영하고 세계가 환호소리로 공감과 지지를 표시하고있는데도 유독 부정해나서고 깨버려야 한다 망발까지 채치고있으니 온전한 정신이라고 하겠는가. 《안보》의 보자기를 씌운 전쟁선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런것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황교안이 법무장관과 《국무총리》감투를 쓰

기 위해 《국회》청문회에 나섰는데 당시 야당의원들에 의해 역도의 병역기피문제가 제기되었다. 그에 따르면 황교안은 1980년 7월 4일 《만성피부병》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피부병 진단은 병역면제판정 이후인 7월 10일에 받았다는게 병역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한다.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성피부병》을 앓는다고 속여서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문제를 두고 당시 황교안이 야당의원들에게 단단히 혼냈다고 한다. 여기에만 그친것이 아니다. 남조선언론들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 명중 담마진(두드러기)병역면제를 받은 대상은 단 4명에 불과하다.

가 다 늘어빠진 지금에 와서 머리에 철갑모를 한번 써서 신문에 사진낸다고 해서 군사포기가 하루아침에 《백전공성》이 되는가 하는 야유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군사에 《군》자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는게 화를 피하는 방법이다. 제가 뭐 안다고 우물렁대며 나서지 말고.

하어든 못내긴 못내기이다 김장호

구정물수도



밧다니까 돈 꿔달란다는 말이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노는 행태가 밧다니까 돈 꿔달라고 더욱더 밧살스럽게 노는 불망나니를 그대로 방불케 한다.

지난 4월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선거제도개혁안》 등 저들이 반대하던 주요개혁법안들이 여야 4개 당의 합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뺄을 쓰며 《국회》를 뛰쳐나가 수심어린달 《민생대장정》 놀음을 벌려놓고 남조선 전 지역을 돌아다닌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자한당》이 지난 5월말 저들끼리 쏠리는 민심의 싸늘한 눈초리에 《장외투쟁》 놀음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저들이 《국회》로 들어갈수 있게 조건을 마련해달라고 생떼를 쓰고있다. 신속처리안건지정

에 대한 여당의 사과와 철회, 현 당국자와 《자한당》 대표와의 1대1회담 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리고있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당국이 여야 5개 당대표회동과 그 이후 1대1회담을 하겠다고 양보하자 승이 난 《자한당》은 원내3당대표회담과 1대1회담으로 맞받 아치며 속대우에 오른 민중이마냥 놀아내고있다.

생떼질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날로 더욱더 어처구니없이 놀아대는 《자한당》의 추태에 여야각계가 분노를 표시한것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정당들은 《자유한국당》의 막말과 《색갈공세》가란무한 《장외투쟁》은 사실상 도를 넘어섰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만든

《자한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조급함이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들고일어나고있다.

지금 대다수의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도 《국회》파행의 책임이 여당보다는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여론이 높다. 이제는 《국회》복귀의 명분을 달라는 《생

한다고 거부한것은 유감이 다. 소수정당이라도 국정론의에 함께 참여할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민주주의이다. 소수정당을 배제하는데 대해서 는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자한당》의 요구를 일축하였다.

한편 민주평화당의 한 의원은 철학사니없이 놀아대는 황교안을 향해 《대통령이

다.》며 분별있게 행동할것을 요구하였다.

지금 남조선 《국회》에는 산불,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대책과 북과 관련된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많은 민생법안들이 쌓여있다. 그런데 민생을 떠드는 《자한당》이 어거지를 쓰며 《국회》를 보이코트함으로써 어는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있다. 파이로 인해 남조선인민들이 겪는 고통은 크다. 특히 산불이 일어난 강원도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인민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민생을 포기하고 권력싸움에 미쳐돌아가는 《자한당》의 행태를 두고 남조선의 정치권에서는 《비로크라스》(상대정당의 주장과 정책에 무조건 반대함으로써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불능의 정치체제)의 전형이라는 비난과 조소까지 울려나오고있다.

문제는 불순한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국회》를 파행시킨 《자한당》의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대변인 등 주요당직자들이 현 당국자에 대한 비난과 기사들에 대한 모욕을 일삼고 지어는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있는 유람선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달까지 일삼고있는것이다. 정치인은 고상하고 인간적 조모적인 교성을 상실한 페르페타한들의 막달로 하여 정치는 더욱더 소란해지고 《국회》 정상화의 끝은 보이지 않고있는것이다.

민심이 바라는 정치는 하지 않고 오직 권력에만 눈이 팔려 부질없는 생떼질만 하면서 제 불장만 보려는 《자한당》과 같은 적폐무리들이 날뛰고있어 남조선정치는 더욱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한편 옥

한 현 옥



한여름의 철보산

평성시 봉화동에 자리잡고 있는 안국사는 고구려시기 20여년간에 걸쳐 완성되었다. 현재 공화국에 남아있는 사찰들 가운데서 역사가 매우 오랜 사찰의 하나이다.

기록에 의하면 안국사는 본래 수심체의 건물로 이루어진 규모가 매우 큰 사찰이었다. 지금은 기본건물인 대웅보전과 태평루, 주월대, 료사 그리고 9층탑과 비가 남아있다. 안국사의 기본건물인 2층으로 된 대웅보전은 건축술이 우수할뿐 아니라 학술적 및 건축구조학적으로 의의가 큰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대웅보전과 마당을 사이에 두고있는 태평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합각지붕으로 된 단층루각이다. 태평루의 앞에는 9층탑

특사문집 안국사

이 있다. 대체로 고려 중기 이후의 것으로 보고있는 이 탑은 안국사가 고려시기에

도 운영되었다는 증거로 되며 당시의 돌탑건축술과 조각술을 연구하는데서 가치있는 유산으로 되고있다.

9층탑가까이에는 천연기념물인 안국사은행나무가 자리고있다.

허성철



《금야혹송》은 조선의 소나무류의 한 종인 곰솔 또는 혹송이 변이된 것으로서 다 자란 나무의 높이가 20~30m, 가슴높이 직경이 40~60cm 정도 되는 사철푸른 바늘잎나무이다.

《금야혹송》은 염기와 병해충에 대한 견딜성이 세고 년평균기온이 9.5~16°C, 해발고도가 300m에이던 해안 지역에서 잘 자란다.

세계적으로 소나무류에는 100여종이 있는데 조선에는 붉은겉질소나무, 곰솔, 보천소나무, 세일소나무, 맹

《금야혹송》 산검은소나무를 비롯한 18종이 있다. 심어서 4년후부터 한해에 평균 50~60cm 정도 자라는

혹송에 비해 《금야혹송》은 한해에 80cm, 최고 110cm까지 자라는 초기성장이 빠른 나무이다.

통천군, 고성군에서 종자와 나무모가 퍼져나간 《금야혹송》은 동해안의 고성군으로부터 단천시, 서해안의 강령군으로부터 은물군에 이르는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있다.

본사기자

국제커누련맹 여자까노에컵경기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 성과 이룩

공화국선수들이 국제 커누련맹 여자까노에컵경기대회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마자르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조선과 중국, 인도네시아, 도이칠란드 등 16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6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루었다.

고행복선수는 까노에 여자 성인급 1인 200m경기에서 우승하였다.

또한 고행복선수는 오수림선수와 함께 까노에 여자 성인급 2인 500m, 200m경기

참가하여 각각 2위와 3위를 하였다.

본사기자



고행복선수

라선시에서 자기가마터 새로 발굴

라선시 라진지구에서 고고학자들이 자기가마터를 새로 발굴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라선시민족유산보존사의 연구성원들과 함께 발굴한 이 유적은 무창동에서 북서방향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사기골 오른쪽봉우리의 남쪽경사면에 자리잡고있다.

가마는 산경사면을 따라가면서 바닥을 약간 파고 진흙과 벽돌로 벽을 쌓은 다음 천정을 궁륭식으로 만든 드림식가마이며 가마터에서 드러난 유물들로는 자기류와 반질대, 벽돌을 들수 있다.

발굴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가마터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것으로 인정된다.

무창동자기가마터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재능을 잘 보여주는 유산의 하나로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의 창조적재능을 잘 보여주는 유산의 하나로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본사기자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콩나물

콩나물에는 단백질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 영양가가 있어서 이것을 먹는 것이 소고기와 남새를 함께 먹는것과 같은것으로 인정되고있다.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대부분은 글로불린의 일종인 글리시닌이다.

필수아미노산의 종합체인 글리시닌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함으로써 머리를 맑게 하

고 정신로동능력을 높이는 약리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들은 콩나물리리를 많이 먹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사화

도끼바위와 화살바위 (1)

글 지홍길, 전 종섭, 그림 채래성

외칠보 만물상에 도끼바위와 화살바위가 있다. 화살바위에는 구멍이 여러개 나 있는데 어떤 구멍은 매우 작고 어떤 구멍은 크고 깊숙하다. 이것은 장수들이 무술훈련을 하면서 화살을 쏘아 낸 구멍이라고 한다.

화살바위에서 가파로운 경사지를 따라서 올라가면 몇 걸이나 되는 미끈한 바위가 초대처럼 곧추 서있는데 그것이 도끼바위이다. 그 옛날 무예를 닦는 장수들이 힘을 키우느라 푹푹 짝어놓았다는 도끼바위가 아직도 력력히 남아있다.

이 두 바위에는 유구한 세월과 함께 전해오는 전설이 있다.

옛날 칠보산 서남쪽에 자리잡은 어느 마을에 한백호라는 장수가 살았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힘과 담력을 키우면서 무술을 닦았는데 그때 그의 유일한 스승은 아버지였고 그가 숭배하는 귀인은 윤학도사였다.

그가 힘과 담력을 키우다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주저앉을 때면 《윤학도사라면 나를 가만 두지 않을게다.》하면서 아버지는 엄하게 무술을 련마시키던 윤학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그럴 때면 자기도 윤학도사의 제자가 되어 무술을 닦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한백호의 가슴속에서 봄싹처럼 움트어나곤 하였다.

그는 열대여섯살이 넘자 송아지도 한손으로 척척 들 어올리고 아름드리 버드나무도 어렵지 않게 쓱쓱 뽑아 버리는 힘장사로 되었다.

어느해 봄날이었다. 새로 무는 배를 띄우려고 여라문명의 어부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모래우로 힘겹게 끌고가는것을 본 한백호는 사람들을 모두 옆으로 나서게 하고 나막신을 신듯이 한쪽발을 배안에 척 넣고 슬쩍슬쩍 밀어서 어렵지 않게 바다에 띄웠다.

어느날 아버지는 아들을 앉혀놓고 신중히 말하였다.

《이제까지 나에게 있는 무술재간을 너한테 짱그리 넘겨주었다. 지금 너에게는 힘은 넘쳐나되 무예가 대단히 약하다. 손세와 칼쓰기, 활쏘는 법을 잘 알아야 참된 군사가 될수 있느니라. 너는 윤학도사를 찾아가서 무예를 착실히 배워라.》

《알겠소이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숭상하던 윤학도사를 찾아가 배우라 하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는 병장기와 갑옷, 투구와 망식을 잔뜩 지고 집을 떠나 윤학도사가 산다는 외칠보를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다.

어느덧 해는 서산에 지고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멀리 앞에 보이는 쓰러발속에서 한줄기 파아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백호는 호기심에 끌려 거기로 바삐 달려갔다. 눈앞에 자그마한 초막이 나뒀다. 날도 저물었으니 하루 밤 쉬어가고려고 집주인을 찾았다.

《누구십니까?》

짜랑짜랑한 목소리의 입자가 문을 열었다. 자기보다 한두살 어리보이는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이였다.

(무슨 사내녀석이 계집애처럼 해사하게 생겼을가?)

첫인상이 너저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돌아서려 했으나 이런 심산속에 랑자가 홀로 와있을수는 없는 일이라 내친걸음에 버리고 갔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하루밤 쉬어갈수 없겠소?》

《저... 초막이 비좁아서... 안됐지만 그래도 좀더...》

한백호가 초막에 들어가보니 정말로 방은 겨우 한사람이나 누울 정도로 비좁았다. 자기가 여기서 자면 주인은 한지에서 밤을 새워야 할 형편이었다.

《여기서 뭘하오?》

《도를 닦지요.》

《도를?》

계집애처럼 해사하고 예리 예리한게 도를 닦는다니 웃음이 나왔다. 하긴 지금이야 사내대장부라면 누구나 무술을 닦을 때이니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그들은 마주앉아 통성을 하였다.

그 젊은이는 자기를 그저

최도령이라 부른다고 했다. 젊은이는 푹배기에 김이 물물 나는 구수한 된장국에 콩밥을 푹푹 퍼서 한백호앞에 가져다놓았다.

《찬이 변변치 못하여 안 되겠소. 시장하시겠는데 사양 말고 드시소.》

《고맙소.》

저녁을 먹자 한백호는 밖에 나가 밤을 새려고 자리에 서 움푹 일어섰다.

최도령은 손님이 밖에서 자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자기는 한쪽구석에서 쪼그리고 자도 되니 한백호더러 제 집처럼 마음놓고 쉬라고 했다.



그는 구석쪽에 앉아있는 최도령을 보고 거기서 자겠거니 하고 자리에 누워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곧하게 잤다.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온 최도령의 머리엔 뽕엿게 서리가 앉아있었다.

한백호는 놀라서 《아니, 나때문에 밖에서 밤을 지낸게 아니요?》라고 물었다.

최도령은 웃으며 《아니요, 무술훈련을 하고 왔소.》하고 대답하였다.

한백호는 그렇거니 생각하였다. 최도령은 쓰러나무를 푹푹 꺾어 부엌아궁이에 불을 지켰다. 자리에서 일어난 최도령은 손을 씻고 산나물을 능숙한 솜씨로 송당송당 썰어 가마에 안쳤다. 동자질을 끝낸 그는 방에 올라와 한백호의 맞은편에 약간 비켜앉았다.

《그래 무슨 일로 어디에 가는 길이요?》

최도령의 물음에 한백호는 부리부리한 눈을 치뜨며 《무술을 배우러 윤학도사를

가았으며 물었다.

《그게 정말이요? 윤학도사를 만나본적이 있소?》

《그 도사에게서 한 3년간 무예를 닦았지요.》

《아, 그렇소?! 그런데 싸움이 끝난지 오랜데 그분은 왜 아직 돌아오지 않을가요?》

《글쎄요.》

말꼬리를 흐리는 최도령의 두눈에는 눈물이 그렁하였다.

한백호는 자기의 존경하는 스승이었던 윤학도사가 3년간이나 종무소식이니 최도령이 이렇듯 슬퍼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윤학도사를 만나려던 간절한 꿈은 깨어지고 말았다.

어린시절부터 그러처럼 명성이 높은 도사의 제자가 되어 무술을 익혀보려던 그 꿈은 이젠 영영 실현될수 없단 말인가.

한백호는 최도령을 유심히 살펴보며 생각하였다.

(이 친구가 그 유명한 윤학도사한테서 무술을 닦았다니 그와 한번 무술을 겨루어봄이 어떨까? 도사는 이제 만날 길이 없으니 혹 이 제자에게서라도 도사의 술법을 배울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무술을 겨루어보지 않겠소?》

《나야 뭐 무술을 익혀야 하지요.》

《그러지 말고 런습삼아 한번 해보시오. 도사님일에서 3년동안이나 무예를 닦았다니 그 술법을 배우고싶어서 그러요.》

《정 그렇다면 아침상을 물리고난 다음 마주서봅시다.》

한백호는 그에게 바투 다

가았으며 물었다.

《그게 정말이요? 윤학도사를 만나본적이 있소?》

《그 도사에게서 한 3년간 무예를 닦았지요.》

《아, 그렇소?! 그런데 싸움이 끝난지 오랜데 그분은 왜 아직 돌아오지 않을가요?》

《글쎄요.》

말꼬리를 흐리는 최도령의 두눈에는 눈물이 그렁하였다.

한백호는 자기의 존경하는 스승이었던 윤학도사가 3년간이나 종무소식이니 최도령이 이렇듯 슬퍼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윤학도사를 만나려던 간절한 꿈은 깨어지고 말았다.

어린시절부터 그러처럼 명성이 높은 도사의 제자가 되어 무술을 익혀보려던 그 꿈은 이젠 영영 실현될수 없단 말인가.

한백호는 최도령을 유심히 살펴보며 생각하였다.

(이 친구가 그 유명한 윤학도사한테서 무술을 닦았다니 그와 한번 무술을 겨루어봄이 어떨까? 도사는 이제 만날 길이 없으니 혹 이 제자에게서라도 도사의 술법을 배울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무술을 겨루어보지 않겠소?》

《나야 뭐 무술을 익혀야 하지요.》

《그러지 말고 런습삼아 한번 해보시오. 도사님일에서 3년동안이나 무예를 닦았다니 그 술법을 배우고싶어서 그러요.》

《정 그렇다면 아침상을 물리고난 다음 마주서봅시다.》

한백호는 그에게 바투 다

지명과 그 유래

강동의 살마지고개

옛날 왜적들이 강동군 송가마을에 쳐들어왔을 때에 있는 일이다.

어슬어슬 해질무렵 평야를 먹어보려고 이곳을 지나 는 왜놈들의 한 부대가 도적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고개 밑을 통과하고있었다.

사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으며 먼길을 오느라고 지쳐서인지 걸으면서 끄덕끄덕 조는 놈들도 있었다.

갑자기 고개마루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수백여개의 불뿔치들과 《사람》들이 일제히 솟아올랐다.

우리 군사들이 이곳에 매복하고있었던것이다. 겁에 질린 왜놈들은 고개에 대고 누번 화살만 날려댔다.

이렇게 고탍소리와 화살을 날리는 소리가 밤새 깃어다녔다.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즈음에 왜놈들은 화살이 몽땅 떨어졌으며 이 기회를 라서 우리 군사들이 좌우로 공격하여 수많은 적들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었다.

우리 군사들이 왜놈들이 퍼뜨리고 날이 어두운 조건을 리용하여 허수아비를 만들어세우고 불뿔치를 켜들어 놈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다.

이때부터 왜놈들이 날린 화살이 고개에 한발 쫓 깔렸다고 하여 이 고개를 살마지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유언

새머느리의 분향

어느 한 가정에서 조상의 묘앞에 모여 제사를 지낼 때 있는 일이다.

아버지가 제상앞에 꿇어앉아 술잔을 들고 새머느리에 게 말했다.

《새게야. 내가 어서 분향해라. (향불을 피우라는 뜻.)》

머느리는 그 말의 뜻을 몰라 남편의 얼굴만 뻔히 쳐다 보았다.

남편도 눈을 깜빡이며 어서 하라고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도 머느리는 저고리고름만 만지작거렸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독촉했다.

《답답하다. 분향하려면 할것이지 왜 그리 움지락거리냐?》

그제서야 머느리는 《음!》하고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제상에다가가서 《분향!》 하고 노래가락 넘기듯 길게 소리쳤다.

옆에 있던 남편이 입을 싸 쥐고 킁거키자 오히려 살짝 고집으며 변명했다.

《목이 쉬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걸 어떡해요?》

본사기자